

‘1인가구’ 34.5% 광주시, 맞춤형 지원 나선다

3년 새 4.3%로 급증...전국 평균 33.4% 보다 높아

안심·돌봄·서로이음으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

광주시에 급증하는 1인 가구를 서로 이어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한다.
 광주시는 1인 가구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만

영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 1인 가구가 건강한 사회공동체로 생활할 수 있도록 3대 이음 정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시 1인 가구는 2021년 기준 21만2885가구로 전체 가구의 34.5%를 차지하고 있다.

1인 가구 비율은 2018년 30.2%에서 2019년 31.1%, 2020년 32.4%, 2021년 34.5%로 3년새 4.3%포인트 급증했다. 이는 전국 평균 1인 가구 비율 33.4%보다 높다. 1인 가구 비율은 서울 36.8%, 부산 34.0%, 대구 32.7%, 인천 30.0%, 대전 37.6%, 울산 29.5% 등이다.

광주시는 1인 가구가 겪는 주거·안전, 돌봄·건강,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 1인 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다. 1인 가구의 성별·연령·소득격차 등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원 체감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3대 이음정책을 내놨다. 3대 이음정책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사회관계망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안심이음 ▲고립감 해소와 건강증진을 위한 돌봄이음 ▲사회적관계 강화 및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서로이음 등이다.

3대 이음정책의 실현을 위한 14개 세부과제도 제시했다. 청년월세 한시 지원 등 안심이음 4개 과제, 모바일 안심돌봄 서비스 등 돌봄이음 6개 과제,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 등 서로이음 4개 과제다. 광주시는 특히 1인 가구의 지원 체감도를 높이고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1인 가구 지원 특성과 사업 공모를 통해 신규 사업 발굴에 힘을 쏟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5개 자치구 또는 자치구+복지시설·기관 연합체로 신청할 수 있다. 광주시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3월 말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임영희 광주시 여성가족과장은 “단기적으로는 1인 가구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며, 중장기적으로는 1인 가구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망 형성으로 다양한 가족도시의 공동체가 조성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1인 가구 특성과 사업으로 1인 가구 지원 정책 체감도가 상승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I 케어서비스 우울감 감소·고독사 예방효과와”

광주서구-KT ‘AI 스피커 기반 케어서비스’ 연구

AI 기술을 활용한 케어서비스가 복지서비스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KT는 15일 전남대학교 생활복지학과 이정화 교수 연구팀이 광주시 서구와 KT가 추진한 ‘AI 스피커 기반 케어서비스’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광주 서구 남성 1인 인구는 23%이며 독거노인 비율은 34.1%다. 전국 평균 노인 인구비율이 17.5%이고 독거노인 비율이 20.8%인데 비해 매우 높다. 광주 서구청은 취약계층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2021년 6월부터 KT와 함께 AI 스피커 기반 케어서비스를 추진해 왔다.

AI 스피커 기반 케어 서비스는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게 전용 AI 스피커를 제공하고 IoT 문열림 센서와 스마트 스위치를 연동해 고독사 예방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다. KT AI 케어서비스는 ‘AI 스피커-KT텔레캅-119 안전신고센터’와 365일 24시간 연동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전남대 연구팀은 이 서비스의 효과성을 연구하기 위해 광주 서구 1, 2차년도 이용자 212명을 전수 조사하고 양적·질적 연구를 병행했다.

연구팀은 AI 스피커 기반 케어서비스가 이용자의 우울감을 낮추고 고독사를 예방하는데 일조했다고 분석했다. 세부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건강수준 개선 및 유지 80.0%, 우울감 감소 63.5%, 고독감 감소 65.9%, 상태불안감 감소 효과가 72.6%로 나타났다.

또 이용자 과반수는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해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고 이 서비스 사용 이후 속마음을 터놓는 친구가 더 많아졌다고 응답한 비율도 45.9%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AI 스피커 기반 케어서비스가 이용자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 일상생활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효과를 냈고, 이를 통해 이용자의 사회적 지지 수준이 제고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전남대학교 생활복지학과 이정화 교수는 “AI 스피커가 고독사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앞으로 돌봄 대상자를 발굴할 때 기존 취약계층 외에도 가족과 관계망이 부족한 대상자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전국 첫 모내기 실시

15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한 비닐하우스 논에서 열린 ‘임금님표 이천쌀 전국 첫 모내기’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모를 심고 있다.

김재환기자

구례군, 산수유꽃축제 4년 만에 개최...3월 11일 개막

봄꽃 대표지역 ‘구례’로 자리매김

구례군에서 4년 만에 산수유꽃 축제가 열린다.

15일 구례군에 따르면 구례산수유꽃축제추진위원회는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4회 구례산수유꽃축제 세부 추진계획 보고회를 열어 다음 달 11일 축제를 개최기로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코로나19 범유행 이후 4년 만에 열리는 제24회 구례산수유꽃축제는 ‘영원한 사랑을 찾아서’를 주제로 3월 11일 오후 6시 개막해 19일까지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 온천 관광지과 산수유 군락지 마을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축제는 공연, 체험, 판매 등 총 40여 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식전 공연은 원촌초등학교 어린이 합창단과 성인들로 구성된 구례합창단이 산수유 로고송인 ‘구례의 산수유’를 부르고, 작년에 전라남도 무형문화재로 등록된 호남여성농악 공연도 펼쳐진다.

개막 공연에는 TV예능프로그램 ‘미스터트롯2’ 6에 올랐던 트로트 가수 ‘장민호’와 트로트 흑진주 ‘박해신’, 조선판스타 우승자이자 구례군 출신 가수 ‘김산옥’과 구례 대표 가수 ‘이정옥’이 무대를 장식한다. 이 외에도 지역 청소년과 지역 청년들이 기

획·공연하는 ‘우리 동네 버스킹’ 공연, 전국 공모를 통해 선발된 버스킹팀 공연, 구례 출신 트로트 가수 기획공연인 ‘렛츠디스코’와 국가무형문화재 농악공연 등이 펼쳐진다.

축제기간 중 어린이를 위한 ‘키즈데이’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산수유꽃을 편하게 감상할 수 있는 휴 쉼터도 조성했다. 어린이 동반 가정과 지역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을 위한 마술쇼, 버블쇼 등 테마 공연을 열어 어린이들에게 재미와 추억을 선사할 계획이다.

구례=박진호기자

금·토요일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지리산의 넉넉함을 담은 인정 가득한 곳

매실

산수유

오이

감